

설계로 말할 때이다

It's the time to say it with design

박인석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Park In-Seok

한국의 아파트 설계. 격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부문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마는 그 중에서 아파트 설계처럼 말 많고 탈 많은 것도 흔치 않을 것이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 설계 현실을 비난하고 한탄해왔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이미 20여 년이건만 비난과 한탄의 내용이나 정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변화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유독 아파트 설계만 '변함없이' 비난과 한탄의 주인공 노릇을 계속하는 셈인가?

따지고 보면 한국의 아파트 설계에도 변화와 쇄신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1970년대 주공이 개척한 초기 사례들에서 진지한 계획개념의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고, 1980년대 목동신시가지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에서 가시화된 개념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필두로 한 현상 설계 사례들은 이들 중 몇몇 개념들을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노력들은 가꾸어지고 키워지기보다는 한낱 에피소드 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파트 설계를 주름잡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개발을 우선하고 민간자금이 의존하는 주택정책 환경 속에서 시장의 위세에 휘둘리고 영합하는 설계들이다. 공공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안녕에서 수요를 찾기 마련인 상품세계. 이 속에서 이미 편향되고 왜곡되어버린 '수요자 선호'. 이를 지고한 잣대로 삼으며 그 편향과 왜곡을 더욱 부추기는 설계들. 더욱 더 길어져 가는 단위주거 전면 폭. 점점 넓어지는 발코니. 화려해지는 실내마감. 모든 설계노력은 개인의 안녕, 전용공간의 안녕에 집중된다. 공공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관심 밖이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보행공간 확충과 조경요소 충실화 바람 속에 그나마 다소 나아진 옥외공간환경은 아직도 '차 없는 공간 만들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받은 눈속임인 조경설계의 난삽한 치장술만 늘어간다.

여기에 법규도 한 몫 거드는 것 역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일조성능과는 관계없이 경직된 이격거리를 고집하는 인동거리규제, 설계자유도는 아랑곳 않는 습관적인 최고층수 제한, 화단 설치를 빌미로 한 발코니면적 확대 조치. '어차피 고층아파트 늘어놓는 아파트 설계, 인동거리나 확보하고 층수나 낮추면 잘하는 일'이라는 식의 무지함이 진지한 설계노력을 방해하고 관습적 설계를 강요한다. 발코니 면적 늘려주는 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모함이 수요자 선호를 더욱 왜곡시킨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단 말이나. 설계자인 건축사들은 탓할 거리가 너무 많다. 정책 탓, 법규 탓, 시장 탓. 아예 아파트 설계를 '못할 짓' 취급하거나 일거리 없어 "손을 더럽히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는 건축사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한 쪽에서는 "대체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아파트 설계처럼 중요한 일에 눈을 감고 있단 말이나"고 항변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아파트 설계. 바야흐로 건축사들간에 서로 삿대질하는 형국까지 빚어낼 참이다.

비난도 한탄도, 삿대질도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자. 정책은 무엇이고, 시장은 무엇이며, 법규는 무엇인가. 그 속에 놓여 있는 설계는 무엇인가. 한국의 주택정책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아파트 설계가 시장 눈치를, 수요자 눈치를 살피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물론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유로 시장 속에 던져진 현실을 방기할 것인가? 사실 정도 차이가 있다 뿐이지 시장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설계가 어디 있겠는가.

시장의 '수요자 선호'는 누가 만드는 것이고, 법규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이들이 설계를 제약하는 것 못지 않게 설계가 이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가? 한 사회의 수요자 선호나 법규는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모습을 기초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고층 주거동들을 밀도에 맞추어 배치하고 그 사이에 오픈스페이스나 확보하는' 설계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법규 입안자가 '인동거리나 확보하고 층수나 낮추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수요자 선호는 전용공간으로만 몰리는 것은 아닌가?

말하나 마나한 양비론으로 물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과 설계와 법규는(그리고 정책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버겁도록 시장의 위세가 세기는 하지만 말이다. 설계도 바뀌어야 하고, 법규도 바뀌어야 하고, 시장도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비난과 한탄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실천들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다른 부문의 변화 계기를 넓히고, 결국에는 자신의 운신의 폭 역시 넓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1990년을 전후로 한 유례없는 경제호황 속에 연간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한 주택건설량과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설계업계 불황이라는 여건 변화는 아파트 설계분야에서 이러한 실천의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설계업계 불황 속에서 아파트 설계물량이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면서 종건 싫건 간에 아파트 설계에 '손을 더럽히는' 건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사상 아파트 설계분야에 이토록 많은 에너지가 집중된 적이 없다. 이 에너지가 아파트 설계 쇄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에너지를 경직된 법규 속에서 편향된 수요자 선호에 영합하는 꼼수를 궁리하는 데에 소진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정책도 그 자리, 법규도 그 자리인 현실. 수요자 선호는 점점 더 단수가 높아지고... 한 가닥 틈새는 있다. 공공기관의 설계경기.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설계경기라고 해서 자유로울 리 없다. 공공기관들마저도 수요자 선호 타령에 물들어 있고 법규 개선에 무감각해진지 오래이다. 심지어 심사 풍토나 공정성마저 비난의 도마에 오른다. 좋은 설계를 위한 풍토 진작에 먼저 나설 책임이 공공기관이나 정부당국 쪽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외면할 것인가? 비난과 한탄만을 계속할 것인가? 심사 풍토를 어렵잡고 시장 영합적인 설계로 알아서 기면서? 어차피 설계는 현실의 온갖 조건과 부딪히며 이루어지는 현실 속의 작업이다. 그것은 현실과의 타협, 혹은 추종이 될 수도 있고 투쟁이 될 수도 있다. 아파트 설계에 유례없는 에너지가 실리고 있는 지금. 지금이야말로 법규 입안자를 깨우치고 공공기관의 무기력을 자극하고 설계경기 심사진을 긴장시킬 투쟁적 설계가 역할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는 물정 모르는 순진함일 뿐인가?

흔히들 '건축사는 설계로 말한다'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건축사는 말도 해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아파트 상황이야말로 설계로 말하는 건축사가 절실하다. 바야흐로 '설계가 말해야 아파트가 바로 설' 때인 것이다. ㉠